광주시립미술관,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 특별전

리투아니아 출신 거장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 기념전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날 것 그대로'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백남준이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시스틴 채플'

영상 15점·아카이브 자료 100여점
존 레논·앤디 워홀 촬영 영상 전시
백남준 대표작 '시스틴 채플' 공개

1969년 오노 요코와 암스테르담으로 신혼 여행을 떠난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은 힐튼호텔 침대 위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모습은 '절친'의 흔들리는 화면 속에 날 것으로 담겼다. 살바도르 달리가 1964년 뉴욕 한복판에서 펼친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도, 더벅머리 앤디 워홀을 위한 유쾌한 시상식 모습도 기록됐다.

'계획적이거나 짜인 것 없이 즉흥적이고 진짜의 순간들만을 촬영'한 요나스 메카스의 필름에는 진한 우정이 담겼다. 9·11 테러 현장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등 그가 포착한 장면들은 문화·예술을 포함한 세계사(史)의 기억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요나스 메카스(Jonas Mekas·1922~2019)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전을 오는 28일까지 개최한다. 2022년은 리투아니아 출신 시인이자 영화 비평가, 실험영화 감독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을 맞은 해로 전 세계에서 그의 작품과 문화적 유산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아방가르드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요나스 메카스의 대표 영상 15점과 관련 도서, 포스터, 시 등 아카이브 자료 100여점이 전시된 이번 특별전은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요나스 메카스라는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는 좋은 기회다. 시간을 갖고 영상들을 감상하다보면 즐거움이 두배다.

요나스 메카스는 일기체 영화의 창시자로 꼽힌다. 실험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필름 다이어리(영화 일기)'는 친구, 우정, 외로움 등 일상 속 삶의 순간을 촬영한 짧은 영상들로, 독자적인 그의 영화 방식이다. 무엇보다 그의 영상 속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과 사건들을 '날 것 그대로' 만나는 재미가 크다.

전시에서는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리투아니아관 출품작으로 베를린 장벽의 파괴, 미국 9·11 테러 현장 등을 담은 '파괴 사중주', 뉴욕 생활에서 만난 친구, 여행 등 일상 생활에 대한 모습을 담은 '월든', '여행 서사시', '소호와의 작별 사중주' 등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그들의 삶과 현실을 포착하고 축하하는 것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말했던 그가 촬영한 존 레논의 생일 파티, 앤디 워홀의 일상, 남편을 잃은 재클린 케네디와 아이들의 모습 등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당신은 가장 빠르고, 가장 대단하고, 최고의 친구예요." 요나스 메카스가 백남준에게 보낸 편지에는 애정이 담겨 있다. 이민자 예술가로 뉴욕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깊은 우정을 이어갔고, 전시에서는 그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백남준의 유명한 피아노 파괴 퍼포먼스를 촬영한 이도 요나스 메카스였고, 그의 영상 속에는 젊은 날의 백남준이 자주 등장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남준이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대표로 참가해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시스틴 채플(Sistine Chapel)'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울산시립미술관 전시에서 30년만에 국내 첫 공개된 작품이다.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이 작품은 40여개의 프로젝터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4채널 비디오 설치영상 패턴이 공간을 가득 채워 빛과 소리의 매혹적 환경을 만들어내며 유명한 플렉서스 예술가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2월호

문화의 중심 '도서관은 살아있다'
세계 디자인 수도 '핀란드 헬싱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의 말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한다.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는데는 도서관만한 곳이 없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2월호가 준비한 특집은 '도서관은 살아있다'다. 도서관은 책만 빌려 보는 곳이 아니라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중인 '광주 대표도서관'을 비롯해 국내 이색 도서관과 문화를 품은 해외 도서관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호에 만나볼 초대석 주인공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AI·데이터 아티스트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 원장이다. 민 원장은 음악·영화·게임 등 '장르 콘텐츠'와 인공지능·메타버스와 같은 '문화기술'의 결합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신시장 개척을 꾀한다. 창작 현장과 콘텐츠산업 행정을 '크로스 오버'하는 민 원장을 만나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창작 작업과 사회적 의의,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미래 콘텐츠 산업에 대해 들었다.

연중기획 '남도 오디세이 美路味路(미로미로)'는 정남진(正南津) 장흥으로 향한다. 선학동 유채와 제암산 철쭉, 탐진강 물축제, 천관산 억새, 편백숲 우드랜드 설경, 그리고 한우육포와 청정해역 무산김까지…. 장흥은 사계절 여행자들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장흥군은 새해 첫날 '2023 문화·관광 르네상스 원년'을 선포했다. 역사와 문화, 치유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 '어머니 품 장흥'의 9경(景)·9미(味)·9품(品)을 찾아 겨울여행을 떠난다.

신년호 지면을 통해 발표된 2023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과의 인터뷰도 준비됐다. 매년 새해가 되면 주요 일간지 신년호에 발표되는 신춘문예 당선작에 문학청년들의 시선이 쏠린다. 그만큼 신춘문예 당선은 문청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자 부러움이기도 하다. 신춘문예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이들의 당선 소감과 함께 쉽지 않은 문학의 길을 걸어야했던 과정을 들어본다.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은 해양도시 부산을 찾았다. 부산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야외조각공원이나 다름 없다. 도심에 자리한 올림픽 조각공원에서부터 시립미술관 야외공원, APEC나루공원, 을숙도 조각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숨쉬고 있다. 여기에 바다예술제, 부산비엔날레 등 빅 이벤트에 출품된 조형물들은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 조성된 조각공원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와의 시너지를 통해 시민들의 미적 안목을 높이고 있는 현장들을 소개한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역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자인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세련되고 감각적인 건축물과 조형물들이 즐비하다. '예향' 2월호 표지에 등장한 캄피예배당도 그 중 하나다.

이외에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은 '조선의 선배' 정영창의 옹골찬 의리와 굴하지 않는 근기가 배어 있는 함양 남계서원을 소개한다. 1년만에 1부 리그 그라운드에 돌아오는 광주FC의 뜨거웠던 태국 동계훈련의 현장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동 전시

ACC재단, 8일까지 기관 모집

조영각 작 '아홉 구름 꿈'

ACC재단은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공동 전시할 문화기관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구운몽'을 현대 시각으로 각색한 조영각 작가의 '아홉, 구름, 꿈'을 비롯해 광주의 설화를 재구성한 문창환 작가의 '조립된 풍경화' 등 13개 작품이 대상이다.

이번 모집은 미디어아트 유통 플랫폼을 확장하고 문화예술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열거한 작품 외에 '2022 북구아트페스티벌 ACC 미디어아트展'에 초청됐던 '아나객잔: 화광'(작가 스트링즈 1826)과 '머신 러닝'(작가 전보경) 등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선정된 기관의 전시 환경 및 작품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 선정된 경우 ACC재단이 작품을 지원하며, 해당 전시기관은 전시 운영 및 홍보를 담당하면 된다. ACC재단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자와 회화적 감성의 만남

한갑수 초대전 '기억나무', 4월 30일까지 갤러리 바로

'도자와 회화의 만남.'

무안군 몽탄면에서 도예 작업을 하는 한갑수 작가는 다양한 주제로 도자의 매력을 알려왔다. 고슴도치, 도깨비, 장승 시리즈 등은 유쾌하고 해학적인 주제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 한 작가가 이번에는 회화적 느낌을 강조한 작품들로 전시회를 갖는다.

한갑수 도예가의 기획초대전 '기억나무'가 오는 4월 30일까지 광주 바로병원 갤러리바로(광산구 연신로 91번길 42)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가 몇년 전부터 작업해 오고 있는 '기억 나무' 시리즈를 집중적으로선보이는 자리로 모두 정통 도예에 회화적 감성과 기법을 더한 30여점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작품 속에 촘촘히 박혀 있는 수많은 '가시'는 군집을 이뤄 하나의 나무의 형상을 만들어내며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시는 작가의 지난했던 시간과 기억을 투영하고 있으며 꾸준히 도예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갑수 작가는 "한 그루 나무가 하나의 생(生)이다. 오늘의 생은 지나간 기억과 다가올 날에 끊임없이 조율되며 변형되어 간다. 그렇게 숱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억나무'"라며 "전시장이 각자의 특별한 기억과 조우하는 숲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달아오름', '달산리 장승' '가족' 등을 주제로 8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산문집 '떨어져 나간 것들의 生'을 펴내기도 했다.

'기억나무'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장호영·류건우 '봄이 오는 노래 소리'

'듀오 콘서트' 4일 예술이 빽 그라운드

겨울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무대가 마련됐다.

테너 장호영과 류건우의 듀오 콘서트 '봄이 오는 노래 소리'가 4일 오후 5시 예술이 빽 그라운드(동구 구성로 204번길 1-1)에서 열린다.

조선대 음악과를 졸업한 테너 장호영은 UN 산하기구 FAO 주최 미국 순회 연주회를 비롯해 로마 산 루카 극장에서 만토바 공작 역을 맡아 '리골레토'를 선보이는 등 국외로 다양한 무대를 펼쳐 왔으며 현재는 이탈리아 알세미나리오 시립 음악원 외래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호영은 토스티의 '새벽은 빛으로부터', '4월에', '이상'을 노래하고 도니제티의 세레나데 곡 '아름다운 밤'을 선보인다. 이어 김동환이 쓰고 김규환이 작곡한 '남촌'과 송길자 시에 임긍수가 음을 붙인 '강건너 봄이 오듯' 등 한국 가곡 두개를 펼친다.

호남예술제 고등부 금상 수상의 테너 류건우는 세종대 음악학부 성악과를 장학생으로 졸업했으며 한·중·일 합창단 단원으로 함께해 무대에 참여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백신개발 프로젝트 원소기호 M.U.S.I.C'에 출연했고 그랜드오페라단 신인 음악회, '한 여름 밤의 꿈' 오페라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무대 활동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장호영

류건우

류건우는 먼저 프랑스 작곡가 레날도 안의 가곡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을 선보이고 가브리엘 포레의 '꿈을 꾼 후에', 드뷔쉬의 '별이 빛나는 밤', 에릭 사티의 '그대를 원해'를 무대에 올린다. 김효근의 '첫사랑'과 '마중' 등 한국 가곡도 부른다.

강의 형식의 해설과 와인이 함께 제공되며 이날 반주에는 피아니스트 천현주가, 해설 사회에는 소프라노 윤혜진이 함께한다. 네이버블로그 '예술이빽그라운드'로 예약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